

그때 그 사건을 아시나요?

본고는 1960년대 이후 양계업이 태동하면서 현재에 이르기 까지 양계업계의 발전과 함께 벌어졌던 각종 사건들을 월간양계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모아 본 내용이다. 이번호에는 양계질병과 관련된 내용을 게재한다.

- 편집자주 -

마렙백신 국내 처음 도입

1970년 마렙병이 국내에 처음 발생한 이후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한미제약에서는 1971년 4월 10일 미국 엘크사로 부터 마렙예방 백신을 수입, 일정한 시험을 거친 후 보급에 들어갔다.(1971년 5월호)

국내최초 전염성후두기관염(ILT) 발생

1982년 국내에서는 발병된 적이 없었던 전염성후두기관염(ILT)이 강화를 비롯한 국내 양계장에서 발병되면서 농장에 큰 피해를 주기 시작하였다. 질병이 확산되자 같은 해 TV를 통해 ILT 피해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방역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치는 등 질병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백신을 긴급 수입, 보급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였다.(1982년 4, 7월)

추백리진단액 양계협회에서 일괄 공급

1985년 추백리검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추백리의 완전 퇴치를 위해 추백리 진단액 공급창구를 6월부터 (사)대한양계협회를 통해 일괄 공급하면서 공급창구를 일원화하였다. 추백리는 1924년 국내 양계질병으로 가장 처음 발견된 질병으로 꾸준히 발병양상을 보여주면서 피해를 가져왔다.(1985년 6월호)

뉴캐슬병 판명 산란계 1천수 매몰

뉴캐슬병이 국내에 처음 발병된 것은 1927년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양계산업이 대형화 되면서 농장에 처음으로 타격을 준 것은 1989년 12월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1종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던 뉴캐슬병이 산란계 농장에서 진성으로 판명되면서 농장에 있던 1천수에 대해 살처분 명령이 떨어져 모두 매몰 처분한 바 있다.(1990년 1월호)

가금티푸스 만연

1992년부터 일부 지역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가금티푸스가 1994년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1995년도는 지역, 계절에 관계없이 만연되어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며 농가에 큰 피해를 주었다. 이때 항생제 사용이 늘면서 항생제 잔류가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으며, 가금티푸스 백신접종이 발생 10년 후인 2002년에 허가되면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1995년 12월호)

조류인플루엔자(저병원성) 국내 첫 발생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당시 가금인플루엔자)가 1996년 3월 20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수일 농장에서 처음 발견되면서 당시 농림수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종계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고 살처분 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당시 이 농장에는 1만9천수 중 2천수 계군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살처분 된 닭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80%기준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현재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법정3종전염병으로 분류되었고 백신이 허용되어 있으며, 질병이 발생해도 살처분 되지 않고 있다.(1996년 4월호)

한국형 IB 사독오일 백신 개발

수의과학연구소(현 국립수의과학검역원)는 1997년 그동안 외국 수입품에 의존해 오던 IB백신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한국형 사독오일 백신을 개발, 민간업체에 기술이전을 하여 2월부터 약품이 출시되어 육계, 산란계, 종계 농가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1997년 12월호)

홍콩 HPAI 발생으로 중국산 가금육 수입중단

1997년 홍콩에서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당시 19명이 감염되어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홍콩으로부터 80%의 닭고기를 수입해가는 중국의 광둥성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자 주변국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도 홍콩으로부터 가금육 수입을 중단시켰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998년 1월 1일을 기해 공식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가금육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1998년 12월호) **양계**